

금호타이어 노조 50% 감산 돌입

임금 7.5% 인상에 성과금 요구 ... 30% 감산에서 압박수위 높아

금호타이어의 노사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노동조합은 전체 생산물량의 50%만을 생산하는 태업에 들어갔다.

금호타이어 노조는 7월15일 <쟁대위 투쟁지침 4호>를 통해 오전 근무 조부터 생산량을 50%로 줄이는 태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.

7월2일에 생산량을 30% 줄인 데 이어 회사 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.

금호타이어 노사는 5월부터 12차례의 본교섭과 6차례의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서로 견해차만 확인하는 등 평행선을 달려왔다.

노조는 임금 7.48% 인상, 2008년 추가 성과금 및 2009년 성과금 지급, 실질임금 하락분 보전, 설비투자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.

반면, 금호타이어는 임금동결 및 정기승호 보류, 성과금 지급 불가, 정원 재설정 및 여력인원 전환 배치 등 7개 항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으며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광주와 곡성공장의 규모를 70%로 줄이고 전체 인력의 13.3%에 해당하는 706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.

금호타이어는 노조에 대해 본교섭을 요청해왔지만 회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벌이는 협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라서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7/15>